

# 참아 기다리라

Wait with Patience

로마서 8:24-2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1월 27일 대림절 설교

<sup>24</sup>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sup>25</sup>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 큰 바위 얼굴

너대니얼 호손 (Nathaniel Hawthorne)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저하고 세대가 같은 사람들은 그 대표작보다 단편소설 하나를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큰 바위 얼굴 (The Great Stone Face)>이라는 단편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소설을 요약한 글이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교과서 중심이라 일단 교과서에만 나오면 평생 갑니다. <큰 바위 얼굴> 같은 좋은 글을 교과서에서 접했으니 교과서 중심이 다 나쁜 건 아닌 모양입니다.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멀리 보이는 한 바위산에는 사람 얼굴 모양을 한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오랜 이야기를 간직한 바위였습니다. 먼 훗날 한 아이가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이 될 건데 그 사람 얼굴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거라는 예언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니스트는 그 사람이 나타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마을 출신으로 큰 도시에 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 마을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니스트가 가서 직접 보니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나타난 그 부자의 얼굴은 바위하고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니스트도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한 건 남들과 같았지만 해질녘이 되면 혼자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습니다. 좀 독특한 버릇이었지만 워낙 성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그 마을 출신으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군인이 그 바위 얼굴과 같다고 온 마을이 환영 잔치를 벌였지만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니스트는 자연과 인생에 대해 많은 걸 깨닫고 그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나중에는 마을 설교자가 되어 날마다 해질녘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설교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을 출신의 정치가였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어니스트가 보기에 큰 바위 얼굴하고 상당히 닮긴 닮았는데 그 바위 얼굴에 담긴 위엄이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니스트는 일을 잠시 쉬고 어떤 시인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그 시인도 그 마을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심오한 진리를 전하는 시인이라면 큰 바위 얼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순간 어니스트의 명성을 들은 그 시인이 신분을 숨긴 채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그 시인인 걸 알게 되었지만 얼굴을 보니 전혀 안 닮았습니다. 실망이지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과 함께 큰 바위 얼굴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가 모여든 군중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 그 시인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하고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봐라, 어니스트 이 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니스트는 설교를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에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사람, 큰 바위 얼굴하고 꼭 닮은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 사람을 기다림

스무 쪽 남짓한 글을 제가 간단하게 추렸습니다만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이 소설을 소개하고 있는 어떤 글을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닮고 싶은 역할 모델을 설정하여 그 사람이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신념과 가치관 등을 느끼면서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소감을 써 놓았습니다. 이 소설에는 닮으면 안 될 역할 모델만 여럿 등장하는데 아마 그 사람은 소설을 안 읽고 소감을 쓴 모양입니다. 아니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책을 거꾸로 읽었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 소설은 '참다운 위인,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한 사람이지만, 작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비록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착한 행위와 신성한 사랑을 행하며, 끊임없는 자기 탐구를 행하며 마침내는 말과 사상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이 진실로 위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긴 했지만 이렇게 너무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글을 쓴 사람은 안빈낙도 스타일의 인생을 지나치게 동경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꼭 도덕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훈을 찾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작가가 의도하지도 않은 도덕을 억지로 찾기보다는 소설도 하나의 작품이니까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바위 얼굴>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꿰는 줄기는 무언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옛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전해오는, 이전의 원주민 시절부터 전해오는 오랜 이야기인데 내용은 앞날에 관한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에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거라는 전설이면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그 예언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설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그 전설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 우리 이야기

어떤 점에서 이 소설은 신화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먼 옛날의 이야기,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이지만 지난날의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앞날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가 평화를 사랑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만 그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뿌리에는 우리 옛 신화, 특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하는 단군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옛 신화가 이후 우리 겨레의 삶을 주도해 왔고 지금 이 신화를 듣고 배우는 우리 아이들 역시 평생 이 신화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호손의 소설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게 신화입니다. 앞날의 일을 말하는 거니까 신화이면서 또 예언인 셈이지요. 사람 얼굴을 닮은 바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신화를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 마을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도 그 신화를 믿고 시작합니다. 소설이니까 그렇지 하고 거리를 두는 똑똑한 독자도 없지 않겠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신화를 함께 느끼지 않았다면 이 소설이 인기도 없었을 것이고 먼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과서에 실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설을 쓴 너대니얼 호손은 십 구 세기, 아직 청교도 신앙이 주도하고 있던 매사추세츠 주에 살면서 작품을 썼습니다. <주홍글씨> 같은 대표작에도 그런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손 본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는 안 다녔습니다. 다녔든 안 다녔든 이 이야기가 못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 기다림, 특히 위대한 어떤 존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신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건 사람이면 다 합니다. 약속 시간에 사람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보다 나은 앞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발은 현재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현실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판단에서 이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믿음도 담겼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보다 나은 앞날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일 수는 없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사는 게 뜻대로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립니다.

## 사람의 마음

동서고금에 종교라는 게 많은데 종교라는 게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기다리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갖가지 문제를 지나간 전생으로도 풀지만 진짜 해결은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서 그 때 문제를 해결하려 올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륵불 사상이 우리 겨레에게 전파되어 한국에 가 보면 웬만한 지역에는 미륵불이 있습니다. 불교가 힘이 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겨레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그렇게 앞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정도 신앙도 앞날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서방정토를 바라보는 신앙이지요. 우리 겨레는 또 앞날을 예언한 예언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책은 하도 인기가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그걸 읽거나 소지하면 큰 별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도령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에다 여러 사람 혹했지요? 요즘 등장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도 보면 꼭

이 기다리는 마음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다리는 마음이 왜 사람의 본성이 되었는지 그건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 창세기 첫 석 장에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첫 석 장은 역사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자리 잡은 이야기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그 문제도 거기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먼 앞날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도 거기 있습니다.

문제는 죄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안 좋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뱀에게 속아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는 악, 곧 안 좋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 세계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녀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날을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 여자의 씨

문제의 시발점은 뱀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면 그 뱀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뱀에게 벌을 주시면서 여자의 씨, 곧 여자가 낳을 아들이 네 머리를 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아들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이 약속 때문인지 아담 하와는 첫 아들 낳기를 많이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얻었다” 하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이젠 됐다 하는 안도감, 기대감이 담겼습니다.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 아들이 뱀을 죽이고 뱀이 가져온 갖가지 아픔도 가져갈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허무하다는 뜻으로 지은 걸 보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모양입니다.

아담 하와가 직접 맛보지 못한 그 구원이 오랜 세월 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하와가 아닌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천 년 전의 일입니다. 오셔서 옛 뱀을 누르시고 그 뱀이 가져온 온갖 나쁜 것들을 몸소 겪으시면서 또 하나하나 없애셨습니다. 오래 전 하나님이 옛 동산에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한 날을 몰라 십이월 이십오 일로 정해 놓고 해마다 축하하는데 오늘은 그 날을 녀 주 앞둔 날로서 그 날을 축하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죄가 가져온 갖가지 아픔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만 바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희망의 날입니다.

## 여전히 기다림

그런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걸로 끝이 나아 되는 것 아닙니까? 뱀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를 없애시고 이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창세기 첫 석 장에 나오는 그 동산처럼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오신 그분을 축하하는 우리에게 아픔이 왜 있고 눈에는 눈물이 왜 있습니까?

세례요한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세상에 아픔과 눈물을 가져다준 뱀은 죽임을 당하고 뱀의 하수인 노릇을 한 사람들은 다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그 분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구원은 하시면서도 뱀을 죽인다든지 그 하수인들을 지옥에 쳐 넣는 일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그대가 오실 그 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 겁니까?

예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께서 일찍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께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은 안 읽고 구원에 대한 말씀만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을 이루러 오셨는데 요한이 오해를 했던 겁니다. 잘못 안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나중에 심판도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한이 전한 그 때는 심판은 아직 아니고 구원만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구원의 일을 다 이루고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오래 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한 가지 약속을 통해 또 다른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은 이천 년 전 오셨던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날일 뿐 아니라 다시 오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 구원과 심판

한 번 기다렸으면 되지 왜 또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은 뒤에도 남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먹고살기는 여전히 힘들고 이민 와 사는 건 더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 오셔서 다 끝장을 내시지 않고 왜 갔다 다시 오마 하셨을까, 그런 의문도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기다림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다림도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기다림은 그 구원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셨다면 아예 꿈도 못 꾸었을 가능성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 천 년 동안 이어진 사랑,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얼른 믿고 구원을 얻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는 아직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그냥 얼른 다시 오셨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바깥 저기를 보십시오.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가 안 좋아서 기다린다 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사람 속에는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좋을 일도 되지만 안 좋은 일도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될 날이니 좋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천 년 전 유보하신 그 심판을 이제는 더 늦추지 않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사람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누구나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 아담을 속인 그 뱀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 앞날은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사람들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냥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속고 있습니다.

## 바른 기다림

호손이 쓴 어니스트 이야기도 어떤 면에서는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고 모두가 인정한 어니스트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란 것 역시 사람 마음에 담긴 기다림 자체를 미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소설을 읽고 나면 나 역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만 하면 좋아집니까? 기분이야 좋겠지요. 하지만 그 좋은 기분에 속아 살다가는 온 인류의 기다림이 끝나는 마지막 날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은 기다리는 날입니다. 막연한 인간 본성에 의지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다리는 날이요, 구원의 완성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참는 것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안 보이지만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걸 보면 완성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참습니다.

참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는 일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좋은 앞날이 안 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고, 그런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참아야 된다고, 확인하고 또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름다운 날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